

[로스쿨 합격기]

꾸준한 준비가 값진 결과를 만든다

피 선 흙

-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I. 들어가며

돌아보면 로스쿨 입시과정은 길고 어두운 터널이었습니다. 끝이 어디인지는 알겠는데, 그 구체적인 방향을 잘 몰랐었기 때문입니다. 입시의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빠른 길로 도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를 통해 자신만의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선택을 신뢰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목적지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꾸준한 노력과 준비가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2012년 1월, 로스쿨 입시를 처음 시작할 당시 제 주변에는 로스쿨 입시를 경험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일단 부딪쳐보는 방식으로 시작하였고, 그 결과 겪지 않아도 될 시행착오들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입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을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는 없을까?”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경험이 담긴 이 글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되었

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입시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저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II. 학부

아직 자신의 진로에 대해 명확히 확신을 가지지 않은 대학교 1~2학년이라면, 학교를 다니면서 다양한 강의를 들으시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구체화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학부 생활은 여러 의미를 가집니다. 그 중 로스쿨 입시와 관련해서, 학부 생활은 법조인이라는 목표를 확실히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학부 과정에서 전공과 함께 다른 전공과 여러 교양과목들을 수강하는 과정에서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어떤 과목들을 듣고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내가 평생동안 이것을 할 수 있을까?”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한 봉사활동 등의 경험을 통해 입학 전 어렴풋이 가지고 있었던 목표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어느날 가만히 앉아서 열심히 생각해본 후 자신의 진로를 정하기는 힘듭니다. 진로는 이렇게 시간과 경험의 흐름 속에서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지인 중에는, 학부 입학과 동시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법조인의 목표를 설정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처럼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 상태에서 학부 생활을 시작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학부과정 전체를 통하여 조금씩 진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나갔습니다. 학부 저학년이시라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강의를 들으시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III. 입시 준비

1. 언어이해, 추리논증

법학적성시험(이하 leet라 하겠습니다)은 언어이해·추리논증·논술 총 3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은 간단히 말해 고난이도 언어능력시험입니다.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독해력과 사고력이 요구됩니다.

법학적성시험 언어이해영역·추리논증영역을 대비할 때, 학부 때부터의 꾸준한 독서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독해력은 짧은 시간 내에 비약적으로 상승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2012년 7월에 있었던 법학적성시험을 위하여 같은 해 1

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도 꾸준히 책을 읽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잘 읽지 않았던 과학·예술 분야의 서적도 적극적으로 읽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험에서의 다양한 지문들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학부 저학년이라면 다양한 분야의 고전을 중심으로 꾸준히 독서경험을 쌓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학부에서 강의하는 기초적인 논리학 강의까지 수강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고전이 아닌, 좋은 교양서적이라도) 한권씩이라도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어이해는 학교 내의 스터디를 통해, 그리고 추리논증은 학원강의를 수강하는 방법으로 꾸준히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시험에 대비했습니다. 특히 언어이해는 5월까지는 기출문제를 이용하여 시간맞춰 문제를 푸는 것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문을 100% 이해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또한 리트 기출문제 이외에 PSAT문제를 풀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PSAT은 방대한 양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롭고 좋은 지문으로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리트를 준비할 때에도 반드시 풀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SAT을 풀고 생각하는 공부가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이 가까워진 6, 7월부터는 학원강의나 인터넷 강의 수강, 모의고사 응시를 통해 좀 더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학원 강의를 수강했었습니다만, 반드시 학원을 다녀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혼자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의 독해력을 가지는 일인 것입니다. 학원이든 스터디든 그것은 오직 수단일 뿐입니다(즉, 자신에게 적합한 수단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 깊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시간에 쫓기면서 빨리빨리 문제를 풀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평소부터 깊게 사고하는 것을 체득시켜야 바쁜 와중에도 좀 더 정확한 답을 골라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논술

논술은 학원강의를 수강했는데, 새로운 논술강의를 찾기보다는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수강했던 논술선생님의 기초강의(대입논술)를 다시 수강했습니다. 논술문제에 최대한 익숙해지기 위하여 꾸준히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러한 계속된 쓰기연습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로스쿨 입사에서 논술은 굉장히 중요한

다고 생각합니다. 논술을 잘 쓰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확실히 보여 줄 수 있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 역시 독해력과 사고력, 논리력이 전제되어야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스터디원들과 함께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공인영어성적

로스쿨 입시를 위해서는 공인영어성적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인영어성적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공인영어성적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텡스(TEPS)를 준비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라 생각되어 한 달간 토익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모의고사 형식으로 되어있는 문제집을 푸는 공부를 하였고, 반복된 연습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인영어성적의 경우 급박하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점수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4. 자기소개서와 면접

저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스터디원들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소개서는 로스쿨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리트 점수·학점 등 모두 중요하지만, 지원하는 학교에 맞춰 자신을 잘 어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스쿨 입시는 단순히 리트와 학점이 높다고 반드시 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가 자신들이 정한 기준에 맞추어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들은 지원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수단으로써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소개서의 경우, 일단 완성된 자기소개서를 스터디원들과 돌려보고, 어색한 부분이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을 수정해나가는 방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친한 친구나 선배 등 지인들에게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보여주고 읽으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같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게 되면 자기 자신은 무리없이 이해가 가지만 타인의 입장에서 읽었을 때는 어색한 글이 나오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대한 배경지식이 적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방법이지만, 다수의 스터디원들이 계속해서 서로의 자기소개서를 돌려보는 것이 자기소개서 준비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에서 자기소개서는 결국 남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쓰는 것입니

다. 합격을 위해서는 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 ② 누가 보더라도 어색하지 않고 ③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을 잘 어필할 수 있는 한편의 좋은 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선 그만큼 긴 시간과 여러 사람들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는 집중적으로 오직 자기소개서만 준비한 시간이 2~3주 이상입니다. 실제로 준비하는 동안, 이 기간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자기소개서 준비는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제가 있었던 스터디에서는 학부생, 법학석사, 회계사, 공기업계직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도움을 받았습니다.

면접은 주제별로 구체화된 문제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것을 중심으로 대비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준일 교수님의 「인권법」 교재를 읽어나가면서 스터디원 중 한명이 챗터별로 예상 문제들을 만들어보고, 그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답하고 그에 대해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험에 가까워졌을 때는 각 학교 기출문제 등을 구하여 실전연습을 하였습니다. 나군에 지원한 학교에서 1차 통과 후 2차 면접을 치루었는데, 상당히 긴장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과 변호사님께서 몇 분 내에 나를 평가하시고, 그를 통해 나의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막상 시험장에 가니 상당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개월 전부터(현실적으로 leet가 끝난 후부터) 실전 형식에 맞추어 말하는 것까지 연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기 타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이름 그대로 언어/추리능력에 대한 능력테스트이므로, 그 실력이 쉽게 증가하지도 않지만 쉽게 하락하지도 않습니다. 시험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많은 분들이 실전 대비를 위하여 모의고사를 푸는 등의 훈련을 하십니다. 이러한 실전대비 모의고사 등의 성적이 들쭉날쭉 할 수도 있지만, 결코 실망하시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갑자기 성적이 잘나왔다고 과도히 기뻐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모의고사가 자기 실제 성적이 아닐 가능성 또한 꽤나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까지 최대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의 경우, 제가 대학교에서 겪었던 경험, 학점에 대한 설명, 그밖에 제2외국어 등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내고자 힘썼습니다. 설령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대단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주 작은 경험

일지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커다란 의미를 가진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는 것 하나로 입시의 모든 것이 결정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와 면접준비, 그리고 최종발표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길고, 힘들고 걱정되는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좋은 스터디원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동료가 있다면 먼 길을 갈 때 좀 더 힘들이지 않고 즐겁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 운이 좋게도 너무나도 좋은 스터디원들을 만나 입시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맞는 좋은 스터디원들과 입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IV. 마치며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입시가 참 길고 어려운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재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행운이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 행운을 위해서 여러 준비를 했고, 그 시간들을 거치며 생각한 것들을 대단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 글에 적었습니다.

입시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걱정들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로스쿨 입시에 대한 오해들과 비관적인 생각들을 보고,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모로 불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떠돌아다니는 말들에 흔들리고 불안해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았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서는 그 준비과정에서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느니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해서 걱정하고 해도 딱히 도움도 안됩니다. 정말 어렵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정보들의 출처와 진위를 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터넷의 경우 생각보다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떠돌아다니는 것도 많습니다).

주변을 보면 “제가 어떠한 상황인데, 로스쿨 준비해도 될까요?”, “제가 어느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어느 로스쿨을 갈 수 있나요?” 등의 질문들이 많습니다. 로스쿨 입시의 특징 중 하나는 리트나 학점 등 소위 ‘스펙’의 어느 한 요소로 당락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점수화를 통하여 입시의 결과가 결정나게 됩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메꾸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한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진학하기를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의 인재상에 맞추어 자신을 잘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원함이 있다

면 리트집수가 낮다. 학점이 낮다. 영어가 낮다. 모교에서 진학한 사례가 적다 등등을 이야기하며 미리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기보다는 자신있게 도전하시고, 도전하는 학교에 자기 자신을 잘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에 맞추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지요.

지금 돌아봤을 때 합격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을 단 하나만 꼽을 수 있다면 역시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자기소개서의 배점이 크지 않더라도, 생각해보면 입시 전체가 자기소개서 하나를 작성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가끔 자기소개서를 너무 단기간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단 며칠만에 촉박하게 자기소개서를 완성시키시기 보다는 긴 시간을 가지고 작성하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학부 시절 전체가 하나의 꾸준한 로스쿨 입시의 길이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몇 년간의 꾸준한 준비와 너무나도 큰 행운이 합쳐져 합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너무나도 저를 많이 도와준 우리 스터디원들에게 늦게나마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도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